

## 문제 1

(가),(나),(다) 각각에서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는 순서대로 국가,시민사회에 속한 개인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다.

(가),(나),(다)의 주체들은 공통적으로 개인들의 행복을 실현시키기 위한 주체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주체의 성격,주체의 역할에 있어서 차이점을 지닌다.

먼저,주체의 성격이 다르다.(가)의 주체인 국가는 국가와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국가 그 자체는 아닌 대상에 관여하는 성격을 가진다. 국가는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법과 제도로써 국가와는 구분되는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하지만 (나),(다)의 주체인 시민사회에 속한 개인들과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개인의 일에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성격을 띤다.(나)의 개인들은 공권력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고 그로서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또한 (다)의 구성원들도 물론 전체의 이익도 고려하겠지만 개인 그 자신의 이익에 미치는 행위에 대해 주체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행동한다.

또한 주체의 역할이 다르다.(가)의 주체인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국가가 직접 국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관여하여 안보를 책임지고 편의를 도모하는 등 국민들의 안위를 보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반면에 (나),(다)의 주체는 개인들이 직접 공공성을 실현하는데 나서서 역할을 한다.(나)의 주체인 시민사회에 속한 개인들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같은 공권력에 대항하여 공론장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경제적으로,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하고자 역할을 한다.이와 달리 (다)의 주체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결정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이나 손해에 영향을 끼칠 경우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의 이익도 고려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 문제 2

(가)에서는 문제에 소개된 공공성의 속성이 실현 불가능하다.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정책들이 어디까지나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국가는 법과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능을 하는,개인의 사적인 영역과는 구분되는 공적의 영역에 있는 주체이다.말로는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배제하기 위해 강제력을 가진다고 한다.하지만 국가도 하나의 이익을 취하는 집단으로서 국민들의 이익을 저해하고 국가만의 이익을 생각하여 개인이 알지 못하게 국민들을 이용하는 악덕을 저지를 수도 있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도 이를 함구할 수도 있다.극단적인 예로 박종철 고문 사건을 들 수 있다.비록 의사의 폭로에 의해 사회에 공개됐지만 국민의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학생을 고문하고 이른 숨기려 했다.이외에도 국가가 숨기려는 시도를 하는 한 알려지지 않은 부정이 분명 있을 것이다.

반면에 (나)에서는 문제에 소개된 공공성의 속성이 실현가능하다.왜냐하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공중과 관련된 사안들을 직접 다루기 때문이다.(가)와는 다르게 (나)는 공공성 실현에 시민의 개입이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그들의 일에 그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일의 투명성은 더 높아진다.그들 개인의 일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이런 인식 속에서 형성된 공론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간다.이런 식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공중의 관련된 일들이 공개되는 것이고 동시에 공공성도 실현되는 것이다.

### 문제 3

(㉠)에는 한정된 양의 나무에 대해 마을 사람 전체가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 어느 한 개인이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하게 나무를 나눠 갖기 위한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입장은 (㉡)이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어느 한 개인이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에서 말한 공론장은 (㉢)에서 언급된 마을 자치회와 기능이 유사하다. 개인들이 모여 특정 안건에 대해 논의를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다수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해낼 수도 있다. (㉠)의 상황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삼림훼손을 막고 마을 전체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들의 공론장, 즉 마을 자치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의 방식은 최대 다수, 최대 이익의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 (㉡)와 비슷하지만 강제성이 부족하다. 또한 벌목량을 나누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의 국가를 이용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생계와 직결된 개인들이 직접 참여할 때보다 철저함에 있어 미흡할 수 있다. 그리고 라에서 제시된 행정적 절차도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들이 사회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 같이 주민들의 긴밀한 협조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국가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라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앞서서도 말한 것과 같이 마을자치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마을 자치회는 벌목량을 정하는 과정부터 감시하는 기능까지 다 할 수 있다. 먼저 주민들은 회의를 통해 삼림훼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벌목량에 대한 쿼터를 정한다. 그리고 유동적으로 다른 주민의 동의하에 조금씩 더 필요한 주민에게 조금 더 많은 벌목량을 부여한다. 이렇게 하면 규칙 1,2가 중복되고 매주 회의를 함으로써 규칙3도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몰래 벌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림 출입기록을 관리한다든지,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삼림을 감시한다든지의 방법으로 국가의 역할의 대신하여 최대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다.